

문제1)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관계가 없다고 본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먼저 (가)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서로 관계없다. 각 개인들은 서로 각각의 운명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로마사회에서는 노예제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노예들의 불행을 단순히 노예 그 개인의 운명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적 불행으로 보았다. 또한 고귀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운명이 운명의 여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시상태에는 노예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운명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개인의 의무이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자신의 행복은 타인과의 행복에는 관계없고 운명에 따른 일이다.

반면에 (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나)에서 아내는 불행하다. 왜냐하면 남편이 혼인이라는 약속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은 절연을 원하는 아내에게 그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며 예의, 염치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아내는 인륜, 예의, 염치도 남편이 함께 이행해 서로 행복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에서 각 개인들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존재했던 노예제도와는 같은 사회규범이라는 맥락에서 차이가 보인다.

제시문 (다)에서도 (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관계있다고 본다. (다)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증가하면 각 개인의 이익들의 총합인 공동체의 이익도 증가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 즉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각 개인들의 행복을 보는 관점에서 (나)와 (다)는 차이가 있다. (나)에서 아내의 행복과 남편의 행복은 별개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남편이 행복하다고 하여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에서는 각 개인들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으로 통합된다. 개인들의 행복에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로 본다. (1005자)

문제2)

제시문 (나)에 따르면 제시문 (라)의 국가군 C가 더 이상적이고, 제시문 (다)에 따르면 제시문 (라)의 국가군 B가 더 이상적이다.

(라)의 국가군 B는 산술평균이 모두 2.05보다 높고 표준편차 또한 모두 0.6보다 높다. 이는 이 국가군의 나라들의 국민들의 총 행복도 점수는 높지만 각 국민들 간에 행복도 점수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가군 C는 산술평균이 모두 2.05이하이며 표준편차 또한 모두 0.6이하이다. 이는 이 국가군에 속한 국가들의 국민들 총 행복도 점수는 낮지만 각 개인들의 행복도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행복해야 한다. (나)에서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을 비판하며 남편과 절연하여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를 원한다. 또 아내는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는 모두가 행복하고 번성하라며 내신 것이라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남편을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각 개인들의 행복도의 총합보다 개인들의 행복도 차이가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군 C를 더 이상적으로 여긴다.

제시문 (다)는 공동체 이익의 총합을 중요시 여긴다. 공동체 이익은 그 구성원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즉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들의 이익을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 또 (다)에서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 더하여 공동체 행복의 증가경향이 감소경향보다 큰 것을 의미하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가 우리가 해야 할 행위이다. 또 그것은 옳은 행위이며 의미가 담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는 개인의 행복도의 차이보다는 그것들의 총합의 공동체 행복도의 정도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는 각 국민들의 행복도 점수 차이는 크지만 그 국가의 총 행복도 점수는 높은 국가군 B를 더 이상적으로 여길 것이다.(1000자)